

생태사회와 불교  
생태학과 현대인의 심리

# 외부화된 자연은 정신질환·현대병 원인

한그루 나무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어릴때 살던 경기도 안성 시골마을 입구에는 큰 정자나무가 있었다. 여름이면 항상 그늘 밑에 마을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멀리서 손님이 오면 1~2km 밖에서부터 알아차려, 손자인 내가 가까이오면 나를 알아본 사람이 우리집에 알려 할머니가 동구밖까지 맨발로 뛰어오곤 하였다. 나에게 이 정자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었다. 수백년간 마을사람들에게 이웃에 누가 무슨 일이 있는지 서로 교환하는 정보교환의 장이고, 대화하고 토론하며 일감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협동하는 마당이었다. 또한 일터에 들어와 쉬는 곳이고 손님에 맞는 곳이기도 했던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공동체 공간이었다.

이 나무는 수백년간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과 이미 돌아가신 수천 수만의 마을사람들 기억과 추억속에, 마음과 정서속에 없어서는 안될 큰 존재이다. 고향을 생각할 때면 언제나 떠오르는 상징이었고, 궁극에는 돌아가야 할 그리움과 귀의처였다. 이런 나무를 그냥 베어버려 빨간으로 사용하면 그만일까?

이 나무는 이미 그냥 나무가 아니다. 수백 수천년간 보이지 않은 관계의 장을 만들어온 크나큰 에너지 덩어리이다. 그런데 이 정자나무만 그럴까? 저 미루나무는, 나무들이 모여있는 저 산, 저 냇물, 저 길은, 저 집은, 저 사람은 등등.

우리가 항상 보아온 SF영화들을 기억해 보자. 하늘 위로 온갖 기하학적으로 솟아있는 인공 구조물, 건물과 그위를 날아다니는 비행선과 우주선, 역시 기하학적으로 만들어진 고가도로들이 보인다.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우주선 내부만 봐도 모두 쇠덩어리와 기계, 시멘트 창조물들의 집합이다. 도대체 도시에서는 우주선에서도 사람들이 먹을 녹색채소를 키우는 장면은 일절 보이지 않는다. 이들 미래는 서로 협력하고 생산하기 보다 대부분 전투하는 장면들로 채워져 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이런 모습인가? 이 SF영화들속에 자연은 '생활속의 밖'에 있다. 자연이 외부화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이 생활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쟁과 싸움은 어쩌면 필연적일 것이다. 아니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종말한 것이다. 그래서 그 뒤 만들어진 인공구조물, 또는 지하생활에 연병하는 SF적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것이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 미래사회가 아니다. 모든 SF의 미래모습은 유토피아(Utopia)가 아니라 디스토피아(Dystopia)이다.

마을사람들의 생활속에, 기억속에 '내부화' 돼 있는 자연이다. 그러나 SF에서의 자연은 '외부화' 돼 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모든 인간정신질환과 현대병의 원인이라고 결과였다. 불교생태심리학자인 조나단 바빌드는 월간 '불교 문화'에서 이렇게 자연이 '외집단'화하면서 인간의 정신적 질병과 자기 파괴가 발생했고, 자비연민의 마음은 고갈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사람을 그냥 죽이거나 해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죽이려는 살인의 마음을 갖게 하려면 우선 상대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적'이라는 추상적 관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한다. 그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전의 참전용사들을 인터뷰했을 때 하나같이 자신들은 인간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테러리스트를 죽인 것이고, 탈레반이라는 적, 악마를 죽인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훈련받았다는 것이다. 물론 상대도 또한 적으로서 미국인을 죽이도록 훈련받았을 것이다. 결국 전쟁이나 살상은 '상대'라는 관념을 만들고 이들을 살해하도록 훈습하는 과정, 결국 나와 상대를 구분하게 만들어 나와 관련된 '내집단'과 상대로 구분된 저들을 '외집단'화하고, 내집단간의 결속과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나와 남을 구분하는 인식이 근본이 된다.



전북 임실의 한 마을의 정자 나무. 정자나무로 상징되는 자연은 이미 마을 사람들의 생활속에, 기억속에 '내부화' 돼 있는 자연이다. 소중한 공동체의 현상이었지만,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자연 외부화된 SF적 삶은  
인공 구조물·기계·시멘트의 집합**

**자연 내집단화 생태교육 주목**

**8정도·자비실천 불교 생태적 삶**

생태적 체험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뜨거운 태양 밑에 드넓은 자연과 대지안에서 자신의 미래와 인생에 대한 계시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한다. 공포와 두려움속에 자연에 대한 경외와 겸손을 느끼게 하고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감사해하고 행복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다. 이 자연속에서 스스로 치유하게 하는 것이다. 이슬람의 수피들은 돌고도는 춤방상을 통해 자연속에 둘러쌓인 자신과 신과 우주와의 일체를 느끼는 명상을 하기도 한다.

불교의 수행과 생태심리 불교의 수행은 자신의 내면 그 밑에 수많은 업적으로 깊이 저장된 아리야식을 살펴 자각하고 궁극에는 자신만으로 갇힌 인식을 넓혀 보다 확장된 지혜의 눈을 갖는 것이다. 감정에 휩싸여 요동하는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고 내려놓으며 몸의 미묘한 변화를 살피고 깨달음의 안목을 크게 넓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서 비롯되어 남과 이웃, 생명과 자연으로 그 연기적 일체를 확신하고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동체대비의 큰 자비심을 내게 된다. 자기편만을 대상으로 한정된 자비는 진정한 자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자비는 조건이 불거나 대상이 한정된 것을 '대(大)자비'라고 할 수 없다. 내집단화된 것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외집단까지 자비심을 내는 것, 결국 수행도 그렇게 큰 자비심을 확대하는 것이 대승교리의 핵심이라고 바빌드는 주장한다.

불자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팔정도(八正道)에서 '정(正)'은 팔리어로 'samma'인데 이것은 '완전한', '모든 것을 포함한'의 뜻과 더불어 '연대', '하나로 연결됨'을 뜻

한다. 결국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8정도는 모두 서로가 연관된 인드라의 세계임을 인식하면서 실천하는 모든 행위인 것이다.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자비연민을 느끼며 나아가 그것을 뛰어넘는 대자비심을 실천하는 삶, 바로 그것이 불교가 생각하는 생태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이라도 인도적 위기일때는 식량을 주고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인도주의'의 명제이다. 그러나 불교적 실천은 이미 나와 남, 나와 적을 구분하는 관념을 뛰어넘어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라는 구분을 뛰어넘는 대자비심으로 나아가 한다.

근본생태론과 불교의 생태론 생태심리학은 안네스(Arne Naess)를 시작으로 한 근본생태론(Dep Ecology)의 인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근본생태론은 사회생태론이나 생태사회론, 생태마시즘과 달리 자연과 인간의 서로 촘촘히 연결되어 나눌 수 없는 하나라는 전일적 인식(Holistic)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누고 조개운 세계가 아닌 인드라의 세계인 것이다.

또한 인간이외의 생명도 그 자체로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인간에게 유용성여부와 관계없이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은 인간외의 자연에 과도한 간섭이 있어서는 안되며 현재와 같은 자연에 대한 지배적 행동방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감소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이 사상은 실제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등장한 강력한 생태주의 사조이다.

사회생태론자인 머레이부크친(Murray Bookchin)로부터 사회성을 갖지 못했다는 강력한 비판을 받지만, 사실 독일의 녹색당이나 그린피스등의 환경운동가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관과 운동성을 갖게 해준 동력이 되어왔다. 결국 모든 사회적 활동은 보다 근본에 가까이 가는 인식과 더불어 보다 현실에 가까워가는 중도적 실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유정길 (예코부터) 전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외집단'화된 자연과 '내집단'화된 자연 위의 정자나무로 상징되는 자연은 이미

## 목각 단청 운각 (간편조립)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90만원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가로, 세로 20cm  
가격 35만원

크 기 : 높이 105cm 하단 가로 3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주문의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 연꽃과 LED조명과 만남! 수공예 창작 연꽃조명

생화와 흡사한 고무소재의 고급연꽃에 LED조명을 넣었습니다. 주로 법당에 부처님 좌우로 놓여지며, 재가불자님 가정에도, 수행 하시는 스님법전에 놓여집니다. 고무소재의 고급 연꽃으로서 생화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며 연꽃, 연방, 연잎, 극락조로 잘 조화된 100% 수공예 창작품입니다.

연등과는 달리 연꽃 자체에 LED조명이 켜지므로 신비롭고 영험함을 더해줍니다. 세속이 찌들고 더럽다 하여도 제한물 정갈히 살고픈 불자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제작했습니다. 처엄상징 연꽃에 등 밝히시어 부디 성불 하십시오.

주문제작문의 010-2692-4632 / 010-9231-1192  
네이버카페 꽃과조명 cafe.naver.com/flowerled  
제휴쇼핑몰 꽃과조명 (http://cafe.naver.com/flowerled) 불교TV(btn mall) / 사찰물 종로불교 / 모란불교용품